

‘대세남’ 이이남



지난 6월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열린 ‘2014 START’전에 전시된 이이남씨의 작품을 관람객들이 감상하고 있다.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 미술관·갤러리 ‘러브콜’
美 UN본부 백남준과 2인전
스미소니언 미술관 작품 설치

말 그대로 ‘대세’다. 미술관과 갤러리는 물론 국내 대형 문화 이벤트, 대학 강연회 등 그를 부르는 곳이 너무 많다. ‘제2의 백남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담양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가 얘기다. 특히 해외 유수의 아트페어와 미술관, 갤러리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 소치 올림픽 평창홍보관에서 미디어 파사드와 디지털 병풍 작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던 그는 3월에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중국 하이난 ‘보아오 포럼’에 초대 받아 경제계 인사 1800여 명에게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 6월에는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열린 ‘2014 START’전에 초대받아 현지인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고, 최근에는 영국 예술품 판매사이트인 ‘에스에디션’(www.seditionart.com)에서 유명 작가 데미안 허스트, 빌 비올라와 나란히 에디션 작품을 선보여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미국 뉴욕 UN본부 로비에서 고(故) 백남준과 2인전을 여는 등 하반기 해외 전시 일정도 빼곡하다.

거장들의 명화에 디지털 기술을 입혀 재해석한 그의 작품들은 한국의 전통 미술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해외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현재 호주 퀸즈랜드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조선 천재화가’라는 타이틀로 작

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등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 중이다. 호주 전 다음에는 아르헨티나 파르타밋미술관에서 열리는 ‘동시적 올림피아’에 참여한다.

9월1~13일에는 뉴욕 UN본부 1층 로비에서 ‘백남준·이이남 2인전-코리안 미디어 아티스트’를 주제로 가장 백남준과 나란히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어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시를 열게 된다. 지난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예술 진선대사로 위촉됐던 그는 유네스코 본부 전시에서 광주작가 15명과 함께 작품을 건다.

이 밖에도 호주 시드니문화원, 파리 문화원, 미국 워싱턴 문화원 등에서 연이어 작품들을 선보이고, 12월에는 독일 솔트 갤러리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연다. 주미대사관과 스미소니언 미술관에는 작품이 영구 설치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싱가포르 국립박물관과 영국 앨버트 뮤지엄 전시가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2014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9월 초대전을 열고 11월에는 서울 가나아트 평창동 전관을 빌려 개인전을 연다.

이씨는 “미디어와 디지털에 대한 철학을 담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계 무대를 두드려 한국과 광주의 미술을 알릴 것”이라며 “잠신한 기획과 아이디어, 나만의 색깔로 우리의 미디어 아트도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이씨는 연세대 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는 서울대 차세대융합연구소 과정에 있다. 북경, 홍콩, 런던 등에서 26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국무용제 빛넬 광주 대표는 누구?



나빌레라예술단

제23회 광주무용제 19일 문예회관 소극장

최근 전국무용제에서 광주 무용이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

로얄발레단의 ‘티핑 포인트 3 7.6’(안무 박선희),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자매뷰’(안무 김미선), 서영무용단의 ‘작침’(안무 서영)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 지금까지 대통령상만 8차례 받았고, 금상도 4차례 수상했다.

전국무용제 예선을 겸한 제23회 광주무용제가 오는 19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 조선훈 교수)가 주최하는 이번 무용제

에는 모두 6개 팀이 참여한다.

최인경무용단은 ‘구타유발자-누가 그를 죽였는가?’를 공연한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희망에 의지한 채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상적인 춤사위를 보여준 최인경씨가 안무를 맡았으며 양재남·조호석·최진씨와 직접 출연한다.

광주현대무용단은 ‘The--Road(도로)’를 김현근씨 안무로 무대에 올린다. 빛속에서도 어둠속에서도 인생의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김현재·차정

은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은 황소희씨 안무로 ‘외침’을 무대에 올린다. 성숙하지 못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한국적 몸짓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그밖에 인터네셔널 발레 컴퍼니는 정정은씨 안무로 묵묵히 진화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발레와 현대 무용으로 전개한 ‘휴먼 플라나리아’를 공연하며 나빌레라예술단(안무 심현정)의 ‘My Way’, 채운화무용단의 ‘The arrival’도 경연에 참여한다.

최우수상 수상팀은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0년만에 털어놓는 첫사랑 이야기

예인방 ‘언덕을 넘어서...’ 18~19일 나주문예회관



나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예인방’(대표 김진호)이 연극 ‘언덕을 넘어서 가자’를 무대에 올린다. 18일 오후 7시, 19일 오후 4시·7시 나주문예회관.

‘언덕을 넘어서 가자’는 70을 바라보는 세 친구의 아슬아슬한 첫사랑 이야기다. 완애, 자용, 다혜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다혜는 황혼의 나이에도 보험설계사로 뛰며 생계를 이어가고 철부지 자용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친구 완애 집에 얹혀산다. 자용이 팔을 다치게 되고 그를 돌보기 위해 다혜가 드나들면서 세 사람은 50년 동안 간직해온 첫사랑의 진실을 털어놓는다.

백상 예술상 연기상 등을 수상한 이승호, 김영, 임은희씨가 출연한다. 연출은 송수영씨가 맡았다.

한편 19일 오후 5시30분부터 한시간 동안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도감치 담그기 체험행사’를 갖는다. 문의 1588-60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 대표 명인 초청 국악한마당

19일 오후 3시 광주 전통문화관

광주시 문화재와 지역 대표 명인, 명창, 명무 5인이 함께하는 국악한마당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19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주말상설공연에 광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와 명인들을 초청해 ‘명인 한마당’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18호 문명자 선생이 심정가 중 ‘방아 찧는 대목’을 가야금병창으로 연주한다. 두 번째 마당은 ‘장흥 전통 가무악 전국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덕속 명인이 설소고 춤을 선보이고 이어 광주지방음악악계 대통령상의 주역인 박준명 명인이 심정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들려준다.

네 번째 마당은 김광복 피리 명인이 평조선율과 남도선율을 중심으로 한 ‘잡이의 소리’를, 마지막은 풍장21예술단장인 신만중 명인이 ‘구정놀이’로 마무리 한다. 김동현 광주시 문화재전문위원이 고수를 맡는다. 무료 관람. 문의 062-232-1501~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무형문화재 18호 문명자 선생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 ☎ 1899-0240

소파 식탁 보신판매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가정용/업소용 150~400cm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가구빌딩